‘진관사 태극기’ 배지 고발 촌극…항일유산 몰이해 점철

구주와 변호사, 국기모독죄로 李 대통령, 우 국회의장 고발
‘진관사 태극기’ 배지 착용 이유
비판 나오자 ‘유물 복원’ 운운
보훈부 “3.1운동 사용된 태극기” 불탄 흔적 민족 항일 정신 상징
높이 평가돼 현재 ‘보물’로 지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계속 착용하고 있는 태극기 배지의 원본은 ‘진관사 태극기’다. 이 배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 민권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대통령에게 달아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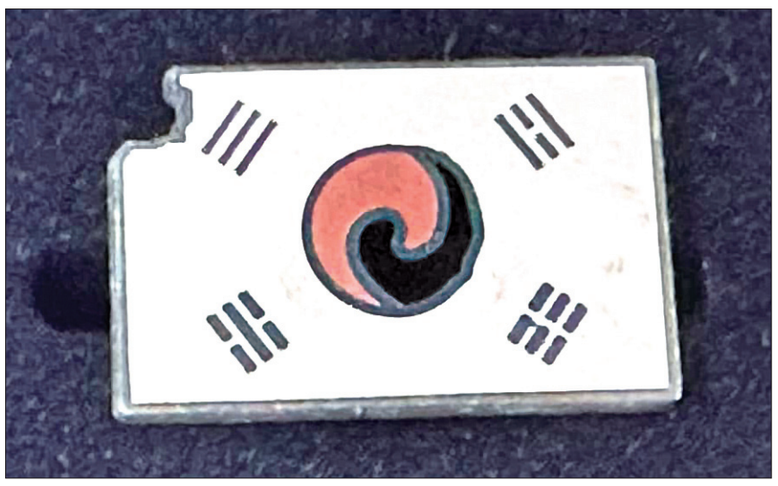
이 같은 ‘진관사 태극기’ 배지에 대해 전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인 구주와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국기모독죄로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 변호사는 6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형법 105조의 국기모독죄에 딱 걸렸네요. 태극기를 손상, 모욕, 제거하는 국기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적었다.

6월 9일에는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형사고발했다”면서 ‘진관사 태극기’를 복원하지 않고 배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유튜브 게시판에 남겼다. 그는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겠지요”라고 썼다.

하지만 사실상 진관사 태극기 배지로 이 대통령과 우 의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당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신문류는 〈경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독립신문〉 등 5종이다. 이들 신문들이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열린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아준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 한 배지. 이를 국기 모독으로 규정한 전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인 구주와 변호사가 6월 9일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고발했다. 사진=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태극기를 숨긴 인물은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 스님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백초월 스님은 3.1만세운동 직후 비밀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불교계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만주지역의 독립군 부대에 제공하는 등 국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인물이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1919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발견된 당시부터 태극기는 왼쪽 모서리가 불에 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등에게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에 탄 자국 역시 우리 민족의 항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흔적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도 진관사 태극기의 불에 탄 자국에 대해 “탄 흔적과 손상으로 보아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당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태극기”라면서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덧칠한 것으로 강렬한 항일독립의지와 애국심이 드러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 3·1운동의 항일 정신이 담긴 태극기의 불탄 자국을 지우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을 역임했던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은 “한 유물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역사성과 예술성, 의미 등을 종합해서 본다”며 “‘진관사 태극기’는 태극기 도상의 변천부터 3·1운동 참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에 탄 흔적을 복원하라는 것은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힐난했다.

민불련 40주년 “민주주의엔 완결 없다”

6월 6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40년사 아카이브 구축 추진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중불교운동을 이끌었던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월 6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40주년 기념추진위원회 위원장 인묵 스님(조계종 어산어장)·공화춘 유족 대표·서동석 민불련 3기 의장과 고문을 맡은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성문 스님(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법타 스님(조계종 명예원로의원)·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여연 스님(해인총림 다주)·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민중민주운동협의회 의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 전병용 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참석해 의의를 더했다.

인묵 스님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도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암울한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 속 기록을 함께한 것”이라고 민불련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민불련이 잊히지 않는 것은 중생들, 민중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모두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불련은 1985년 5월 4일 ‘자주·민주적 불교 건설’을 서원한 사부대중의 연합조직으로 출범했다.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와 10.27법난 공론화, 94년 종단 개혁 등 불교계 안팎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민불련은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향후 민중불교운동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故종명 스님 유훈, 동국대 발전으로 승화

스님 후원자 1억4000만원 기부
“종명 스님 인재 양성 뜻 받들어”

선운사 말사인 성불사 주지였던 故 종명 스님의 ‘불교 인재양성’ 유훈이 후원자와 도반 등에 의해 구현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5일 본관 4층 접견실에서 ‘故종명 스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종명 스님의 오랜 후원자인 관음행 보살과 능가산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스님과 인연이 있는 기부자 4명이 학교를 직접 찾아 발전기금 1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관음행 보살은 “스님께서는 석전 박한영 스님과 같은 선운사 인연을 소중이 여기셨다”며 “종명 스님의 생전 뜻인 불교인재양성을 받들기 위해 종고 스님과 상의해 동국대에 기부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성불사 주지를 역임했던 故 종명 스님이 동국대 발전기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은 스님의 오랜 후원자였던 관음행 보살이 맡았다.

이에 윤재웅 총장은 “인재불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동국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석전 박한영 스님을 재조명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로터스관 건립사업 등 故종명 스님의 뜻에 따라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5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진흥원의 4대 공모사업은 2003년 제정된 ‘대원상(大圓賞)’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불교학술·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이다.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는 출·재가자와 단체를 시상하는 대원상은 출가부문(개인·단체), 재가부문(개인·단체), 특별 정진상(조계종 소속 해외 유학승 2명) 등의 부문으로 공모하며, 상금은 대상 3000만원, 특별상 1500만원, 장려상 1000만원, 특별 정진상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제11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초·중·고·대학·대학원 불교동아리에는 50~150만원의 활동 지원금이 수여된다. 공모 희망자와 단체는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흥원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11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 받으며, 접수는 진흥원 이메일로 하면 된다. 선정 단체 및 기관에게는 200~5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제12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학술 부문과 불교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접수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며, 진흥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
▶동참금 : 280만원부터~
명사산 월아천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